법륜 스님 백일법문 입재…“행복의 100일”

2월 16일, 정토사회문화회관서
2025년 ‘특별정진의 해’ 지정
첫 100일 ‘백일법문’으로 시작
경전, 수행법, 사회이슈 등 강의
“세상을 정화할 힘 얻어가길”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불교 수행공동체 정토회가 2025년을 특별정진 기간으로 정하고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100일간 개최하는 ‘법륜스님의 백일법문’이 2월 16일 입재를 맞았다. 사진은 입재법문 중인 법륜 스님.

“모든 정토행자, 불자, 그리고 의식 있는 시민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지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일구기 위한 100일간의 정진을 함께 해나가봅시다.”

불교 수행공동체 정토회(대표 전해종)가 2025년을 특별정진 기간으로 정하고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100일간 개최하는 ‘법륜스님의 백일법문’이 2월 16일 입재를 맞았다. 이번 백일법문은 1차 만일결사를 회향한 정토회가 2025년 한해를 특별정진의 해로 정하고 2차 만일결사에 돌입하며 개최되는 첫 100일 정진법회다.

입재식에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정토회 특별정진·백일법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수 스님을 비롯해 단기출가생과 정토회원 등 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일법문은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3월 9일까지는 본 강의에 앞선 열린법회가 예정돼 있다. 열린법회에서는 불·법·승 삼보의 예불문, 수행자의 참회수행법, 영가 천도의식, 소심경과 법성게 강의 등 예불의식, 경전과 수행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법문이 진행된다.

이후 본 강의에서는 매일 오전 9시 예불을 시작으로 매일 경전강의, 정토불교대학, 불교사회대학, 즉문즉설, 1080배 정진,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정토불교대학은 불교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오전과 저녁 시간에 불교 기초 상식을 강의한다. 불교사회대학은 인공지능, 종교갈등, 기후위기 등 사회사안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석과 법륜 스님의 실천불교 경험을 전한다.

입재법문에서 정토회 지도법사이자 (재)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2025년을 특별정진으로 정한 이유가 혼란스러운 미래를 대비하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면 예측이 곤란해져 저절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행복을 일굴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키우고자 2025년을 특별정진의 해로 정하고 첫 100일 동안 백일법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륜 스님은 “이번 백일법문에서는 ‘불교사회대학’이 생겨 AI 등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무리에서 스님은 “이번 백일법문을 통해 정토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며 행복으로 세상을 정화시킬 힘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토회 특별정진·백일법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수 스님은 백일법문의 의의를 짚었다. 유수 스님은 “이번 백일법문은 정토회원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의 시민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사람이 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일궈나가길 기원하며 열린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일간의 여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와 지구, 인류의 삶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미라 특별정진위원회 경전강의 팀장이 대표로 대중 발원문을 낭독했다. 대중은 “백일 동안 이어지는 법륜 스님의 법문이 고뇌하는 이들의 희망이 되길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신임 동국대 의료원장에 이해원 교수 선임

제359회 이사회서 만장일치로…신임 감사엔 이재석 회계사



동국대 의료원장에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2월 1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59회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의료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해원 교수의 선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해원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대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대병원 비교기과 전공의·전임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단국대병원에서 조교수를 역임했다.

2005년 4월 동국대 의과대학 및 동국대 일산병원 부교수로 부임한 이래 동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학장, 동국대 의료원 기획처장,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지냈다.

신임 의료원장 선임 후 이사장 돈관 스님은 정년퇴임을 맞은 채석래 의료원장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채석래 의료원장은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인해 레지던트들이 100명이 사직하고, 학생 300명이 이탈해 동국대 의료원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임을 내려놓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새로 오시는 이해원 의료원장이 능력이 출중하신 만큼 동국대 의료원을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사장스님과 이사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5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훈 감사의 후임으로 이재석 신한회계법인 이사를 선임했으며, 임기 만료 예정인 전수미·손강숙·강소연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후임으로 한샘이 법률사무소 세호 대표변호사·이영숙 전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교장·김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장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이사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2024회계연도 법인산하학교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5회계연도 각 급기관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학과·대학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불용자산 폐기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미수금 대손상각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이사회는 로터스관 신축사업 변경 추진 계획과 2024학년도 WISE캠퍼스 기금 모금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절기로는 우수인데, 이 시기의 학교는 졸업식과 입학식으로 분주한 시기다. 방학 동안에도 불교동아리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각 캠퍼스 총장과 지도법사, 지도교수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새 학기부터는 전법특임교수 제도가 신설된다. 대학생 전법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전 세대가 함께 한 ‘장 담그는 날’

‘종로&장금이 장독분양사업’
어린이, 청·장년 등 40여 명 참여
전통장 강의, 장 담그기 체험 ‘다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월 18일, 관내에서 ‘장독분양사업, 장 담그는 날’을 개최했다. 이날 체험행사에는 남녀노소 40여 명의 장금이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장(醬)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며 ‘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졌다. 이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매년 인기리에 개최하는 ‘종로&장금이 장독분양사업’도 다시금 주목받았다. 올해 개최된 장독분양사업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장을 담가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은 2월 18일, 관내에서 ‘장독분양사업, 장 담그는 날’을 개최했다. 이날 체험행사에는 남녀노소 40여 명의 장금이들이 참여했다.

장 만들기 체험에 앞서 관내 4층 강당에서는 ‘전통 장 강의’가 진행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이 직접 연사로 나서 참여자들에게 장이 가진 의미와 좋은 재료 고르는 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날 스님은 “2018년에 ‘장 담그기’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독분양사업의 문을 열었다”면서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며 ‘장 담그기’의 의미가 커져 앞으로도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의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5층 장마당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장 담그기를 시작했다. 조별로 배정받은 장독과 메주 앞에 선 참가자들은 설렘 반, 긴장 반의 얼굴로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착용했다. 혜화어린이집에서 온 어린이들은 메주와 재료들을 보며 “이 벽돌이 먹는 거예요?” “이 메주가 더 예쁘게 생겼어요” 등 저마다 한마디씩 소감을 남겼다.

참가자들의 장 담그기에 앞서 선배 장금이들의 장 담그기 시연도 진행됐다. 김홍덕 1세대 장금이와 박수빈 2세대 장금이는 순서에 맞춰 장독을 닦는 법, 재료를 넣는 법 등을 설명했다. 시연을 마친 뒤에는 ‘장 담그기’가 가진 의식의 의미와 역사성을 되새기는 명상이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장 담그기 체험에서 참가자들은 정성스럽게 닦은 장독에 메주를 짜임새 있게 넣고 그 위에 소금물을 부었다. 마침내 모든 팀들이 고추와 숯 등 띄움재료를 넣고 뚜껑을 봉하면서 마무리 짓자 박수들이 터져나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장을 담근 백지원(11, 서울제동초) 어린이는 “된장 하나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알게 돼 앞으로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오늘 체험한 장 담그기 행사를 친구들에게 어서 빨리 자랑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가령 기자

육사 졸업 법회, “호국불교 전통 이을 것”

2월 17일 화랑호국사서



4년간의 학업과 훈련을 회향하고 장교의 길로 나아가는 육군사관학교 불자 생도들이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주지 현혜 권기태 법사)가 2월 17일 경내 화랑호국선원에서 ‘육군사관학교 제81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진각종 포교부장 원영 정사, 우경석 군국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이영주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육군사관학교 불자 생도 6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석에 오른 호산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혼돈과 혼란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부처님 가르침이 옅여진 말법시대라고 한다”며 “사바세계, 그것도 말법시대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멈춤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 성지순례 당시, 많은 고초가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례를 여법하게 회향했다”며 “군인정신도 마찬가지다. 지휘관이 될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수행을 통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재 기자

20돌 ‘달마배 스노보드’, 청소년 캠프로

2월 12~14일, 평창 용평스키장



스노보드 국가대표를 대거 양성한 ‘달마배 스노보드대회’가 올해는 주니어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는 캠프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이웃을돕는사람들(대표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은 2월 12~14일 2박 3일간 평창 용평스키장에서 ‘제20회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개최했다. 캠프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50여 명이 동참했다. 전 스노보드 국가대표를 비롯해 프로 선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실력을 훌쩍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벌써 올해로 20회를 맞은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는 스노보드 유망주 발굴과 함께 청년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스포츠 포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이끌고 있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대회에 대해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 중 대다수가 불자가 되는 스포츠 포교의 롤모델”이라며 “주니어 선수들이 선배선수들과 함께하며 실력도 늘고 불심도 생기며 불교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환경연대, 2025년 정기총회 개최

2월 19일, 관내 교육장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2월 19일 관내 교육장에서 ‘불교환경연대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예산안을 승인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사업을 △생명살림 △소욕지족 △기후·에너지 전환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생명 가치 확산을 위한 ‘생명살림’ 사업에는 환경보살 1000인 조직화, 4대강 생명살림순례(낙동강), 생태방생운동, 숲해설가 교육, 어린이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이 계획됐다.

순환하는 생활양식을 일구는 ‘소욕지족’ 사업은 ‘녹색도량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66개의 사찰이 녹색사찰 협약을 맺었는데, 불교환경연대는 이 협약을 세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관, 어린이집 등 시설들을 ‘녹색도량’으로 지정해 불교환경연대 주도의 환경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 전환’ 사업 부문에서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사용 담론 확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종단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불교계에서 에너지 인식을 깨우고 변화를 추동할 방침이다.

김가령 기자

아름다운동행·KB국민카드, 학용품 전달

2월 20일, 어린이 2124명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KB국민카드가 내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 2124명에 책가방·학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은 2월 20일 서울 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너의 입학을 축하해’ 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매년 아름다운동행을 통한 소외계층 돕기에 나서줘 감사하다”면서 “나눔을 실천하기 어려운 시절인 만큼 베풀어준 자비심이 더욱 귀하다. 아이들에게 잘 전해 기쁨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배우는 기쁨을 전하고 싶어 매년 책가방·학용품 세트 선물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름다운동행과 함께하는 ‘책가방 보내기’ 사업은 KB국민카드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선물 세트는 이달 중 복지관 등을 통해 지역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가령 기자